

## 일본은행의 24.3분기중 지역경기판단\*, 2개지역 상향 조정

\* 일본은행은 2024.3/4분기중 지역금융경제상황을 9개 광역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경제보고서(사쿠라리포트)로 발표(2024.10.7일)

- 일본은행은 9개 광역지역 중 2개 지역(호쿠리쿠, 토카이)의 경기판단을 전분기(24.7월) 대비 상향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분기와 동일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4.10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 참조
- 1개 지역은 '회복(回復) 기초', 4개 지역은 '완만하게 회복(回復)', 4개 지역은 '완만하게 개선(持ち直し)', 로 판단\*
- \* 일본은행 지역경제보고서상 경기판단에서는 持ち直し와 回復을 아래와 같이 구분
- 持ち直し(pick up): 경기가 저점에서 이전의 정상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상태
  - 回復(recovery): 제반 경제지표가 약화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정상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며 持ち直し보다 한 단계 높은 경기 판단
- 금일 지점장회의에서는 지역경제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논의
- (민간소비\*) 관광·숙박 등 인바운드 수요를 중심으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백화점 고가상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절약지향 소비도 관측. 임금인상이 개인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소비진작 효과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관측
  - \* 인바운드 수요 포함
  - (설비투자) 건설비용 상승, 일손 부족에 의한 발주취소·연기 등이 일부 보이나, IT관련 수요 확대 기대 및 일손부족 대응·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 투자 수요 등 적극적인 투자자세가 유지
  - (생산) IT업종의 경우 글로벌 수요회복에 따른 증산 움직임이 보이고, 자동차업종도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고
  - (고용·임금) 인력부족 하에 내년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면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존
  - (가격설정)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전가 움직임은 한층 약화되고 있음. 한편 인건비 가격전가는 어렵다는 기업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가격전가를 실시·검토하는 움직임도 확산

작성자 :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

<붙임>

### 2024.10월 현재 지역별 경기판단

지역	소속 도도부현 <sup>1)</sup> (都道府縣)	취업자 수 비중 <sup>2)</sup>	지역별 경기판단 내용		
			변화 방향 <sup>3)</sup>	'24.7월	'24.10월
홋카이도 (北海道)	홋카이도	3.9%	⇨	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개선	(좌동)
토호쿠 (東北)	미야기, 후쿠시마 등	6.6%	⇨	완만하게 개선	(좌동)
호쿠리쿠 (北陸)	토야마, 이시카와 등	4.0%	↗	개선의 움직임 보임 (지진의 영향으로 소비나 생산 일부에 하향이 보여지나, 복구 부흥 수요나 생산 정상화도 진행)	완만하게 회복 (지진의 영향이 여전히 잔존하며, 오쿠노토 호우의 영향에 대해 주시)
칸토·코신에츠 (關東·甲信越)	토쿄, 카나가와, 니가타 등	38.6%	⇨	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	(좌동)
토카이 (東海)	아이치, 시즈오카 등	12.1%	↗	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	완만하게 회복
킨키 (近畿)	오사카, 교토, 효고 등	15.8%	⇨	일부 약한 움직임이 있으나 완만하게 개선	(좌동)
츄고쿠 (中國)	히로시마, 야마구치 등	5.5%	⇨	완만한 회복기조	(좌동)
시코쿠 (四國)	에히메, 카가와 등	2.7%	⇨	개선 페이스가 둔화	완만하게 개선
큐슈·오키나와 (九州·沖縄)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10.8%	⇨	일부 약한 움직임이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	(좌동)

주 : 1) 1都(도쿄) · 1道(홋카이도) · 2府(오사카, 교토) · 43縣

2) 2023년 기준 지역별 비중

3) 전분기 경기판단과 비교시 경기의 개선 또는 악화 정도의 변화를 나타냄(예를 들어, 개선 정도의 강화·악화 정도의 약화는 「↗」, 개선 정도의 약화·악화 정도의 강화는 「↘」, 변화 없음은 「⇨」)

